수도권서 600여명 내려왔는데 집도 학교도 없어

나주 빛가람도시 이주자 원룸 구하기·전학 '골머리'

65%는 광주에, 35%는 나주에 임시 주거지 마련

대부분이 자녀 광주 전학 원하지만 현실적 어려움

"집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아이들이 다닐 학교도 없는데 어떻게 이사를 오란 말입니까?"

나주 빛가람도시에서 첫 업무에 들어가는 우정사업정보센터 직원들의 볼멘소리가 터져 나오고 있다. 아직은 빛가람에 집과 학교 등 기반 시설이 완벽하게 조성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가장 큰 문제는 주거다. 빛가람에 들어서는 아파트의 입주 시기가 빠르면 올 하반기에서 내년 상반기에 몰려 있어 당분간은 임시 숙소를 잡아야 한다.

빛가람 단독주택 단지가 올 3월 이후 신축이 가능하고, 원룸 건축이 불가능 한 2~3층 주택(3가구 이내)으로 규정돼 있어 대부분 이주 직원들은 나주 인근의 원룸을 알아보고 있는 처지다. 우정센터에서 2~3분 거리의 원룸 4곳은 이미 계약이 완료됐고, 20분 거리인 나주 등지의 원룸도 구하기 힘든 실정이다.

수요가 몰리다 보니, 원룸 임대 가격도 치솟고 있다. 현재 이 일대 원룸은 보증금 500만원, 월세 35만~42만원 선에서 거래되고 있어 광주 지역 원룸 가격(보증금 200만~300만원·월세 30만~35만원)을 이미 넘어섰다.

이에 따라 일부 직원들은 광주 효천지구나 금호지구 등지에 주거를 마련하고 있다. 우정센터 직원 816명 가운데 수도권에서 내려오는 직원은 616명. 이들중 65%는 광주에, 35%는 나주에 주거를 마련한 것으로 알려졌다.

빛가람도시에는 내년에나 학교 개교가 가능해 교육도 이주 직원들의 발목을 잡고 있다. 애초 이주 기관 임직원 자녀의 광주지역 고교 진학을 위한 '혁신도시와 광주시 간 통합 학군제 도입'이 추진됐지만 법적인 문제 등으로 어렵게 됐다.

현재 우정센터 이주 임직원 자녀 72명 중 나주로 전학을 희망하는 학생은 21명뿐이다. 나머지 51명은 광주로의 전학을 원하고 있지만 거주지가 나주일 경우에는 근거리 배정 원칙 등에 따라 사실상 광주 전학이 힘든 실정이다.

일부 임직원들은 아예 광주 금호·풍암지구의 원룸을 알아보거나 주소지를 임시로 옮겨 놓는 등 아이들 전학 문제로 골머리를 앓고 있다.

우정사업정보센터 김현덕 팀장은 "자녀가 부모의 직장옆에서 학교를 다녀야 돌볼 수가 있는데 주거지를 배후도시에 마련하다보니 교육과 출퇴근이 엇갈리는 삼중고를 겪고 있다"면서 "빛가람이 제대로 도시의 기능을 하기 위해서는 주거와 교육문제 해결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 6일 전남도와 광주시 등이 이전 기관과 이주 임직원을 위해 추진하고 있는 64개 항목의 '이전지원계획'을 점검한 결과<광주일보 7일자 1·3면>, 28개만 완료되고 36개는 제대로 추진되지 않았거나 실현 가능성이 적은 것으로 드러났다.

/오광록기자 kroh@kwangju.co.kr'

/나주=손영철기자 ycson@

■빛가람도시 입주 기관 위치도

다음달 4일 우정사업정보센터가 개청과 함께 첫 업무를 시작하면서 본격적인 빛가람 혁신도시 시대가 도래할 것으로 보이지만, 이전 기관 직원 및 가족들이 거주할 아파트 등 기반시설은 여전히 공사중이어서 직원들의 불편이 우려되고 있다. /김진수기자 jeans@kwangju.co.kr

혁신도시 이전기관, 지역 대졸자 우선 채용

주승용 등 발의 '특별법' 통과

혁신도시로 이전하는 공공기관이 지역 인재를 우선 고용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또 혁신도시에서 인·허가 등의 대가로 부과되는 수수료 등을 면제토록 하고 시장·군수뿐 아니라 시·도지사도 학교부지 매입, 시설의 건축 또는 학교 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민주통합당 소속 주승용 국토해양위원장은 이 같은 내용의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 2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27일 밝혔다.

이 법안은 새누리당 이강후 의원, 민주당 배기운·김민기 의원이 발의한 같은 이름의 법안을 주 위원장 이름으로 조정 통합한 것이다.

특히 제29조에 혁신도시로 이전하는 공공기관은 해당 시·도의 지방대학을 졸업했거나 졸업예정인 자를 우선적으로 고용할 수 있도록하고, 47조에는 시·도지사가 혁신도시 내 기업 등의 유치 및 지원을 위하여 산·학·연유치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각각 명시했다.

또 국토해양부장관이 국가 소유 종전부동산의 계획적 관리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매입공공기관 등이 매입하기 전에 미리 해당 종전부동산의 활용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한 규정을 삭제, 부동산 매입 요건을 완화했다.

이에 따라 혁신도시 개발사업의 주목적인 국가균형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가 가능해 질뿐 아니라 혁신도시의 조기 활성화가 가능해질 전망이다.

주 위원장은 "지원 특별법 통과로 지역 대학생들이 수도권 대학으로 가지 않더라도 공공기관에 우선 취업할 수 있는 기회가 마련됐으며 혁신도시 활성화가 앞당겨질 가능성이 커졌다"고 말했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나주~빛가람도시~광주역 시내버스 3월부터 10분간격 운행

이자 지원 등 각종 혜택

나주시는 우정사업센터의 입주에 맞춰 시내버스 노선을 신설하고 아파트 대출 이자 지원 조례를 마련하는 등 다양한 지원책을 내놓고 있다.

우선 우정센터 임직원들의 교통편의를 위해 나주~빛가람도시~광주역를 잇는 시내버스 노선을 신설했다. 다음달 1일부터 운행에 들어가며 하루에 왕복 55회다. 출퇴근 시간대에는 10분 간격으로 운행함으로써 빛가람도시 이전 기관 임직원들의 불편을 최소화할 계획이다.

시는 또 나주에 주소를 둔 이전기관 임직원이 아파트를 마련하면서 대출을 받을 경우 최대 5000만원에 한해 이자를 5년 동안 지원하는 조례안을 다음달 나주시의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300석 규모의 우정센터 구내식당에는 나주산 친환경농산물을 식재료로 제공하고 방범지원 가용인력을 최대한 배치해 빛가람도시의 치안에도 만전을 기하기로 했다.

/나주=손영철기자 ycson@

독립운동가 백범의 정신까지 담아낸 초상화

김은영의 '그림 생각'

⑲ 아름다운 나라

"눈을 밟으며 들길을 갈 때/모름지기 함부로 걷지 마라/오늘 내가 남긴 발자취는/뒤따르는 사람에게는 이정표가 될 것이니"

백범 김구(1876~1949) 선생은 서산대사의 오도송(悟道頌) '야설(夜雪)'을 즐겨 암송하였다. 우리의 소망인 민족통일을 위해 역사 속에서 가장 치열하게 고민하고 행동했던 민족지도자다운 좌우명이다. 백범이 남긴 발자취를 떠올려보면 우리는 오랜 시간 민족지도자의 삶이 남긴 의미를 망각한 건 아닌지 하는 생각이 든다. 전 세계의 어느 독립운동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규모의 힘찬 민족적 항거였던 1919년 3·1운동을 기념하는 삼일절을 앞두고 문득 숙연해진다.

김호석(1957~)의 인물초상화 '항거-백범 김구'(1988년 作)는 참으로 옷깃 여미게 하는 작품이다. 화가는, 백범의 얼굴은 전통적인 초상화법으로, 몸은 먹의 필선만으로 묘사했다. 독립운동가가 지녔던 투철한 신념이 살아나도록 눈에 힘을 주고, 유년기에 천연두를 앓아 살짝 얽은 얼굴의 사실적인 느낌은 거친 종이로 나타냈다.

'초상화 왕국'이었던 조선시대의 인물화 기법은 단지 그 얼굴

김호석 작 '항거-백범 김구'

모양만 아니라 터럭 한 올까지도 놓치지 않는 겉모습의 핍진함과 정신세계까지를 담아내는 '전신사조(傳神寫照)'를 중요시 했다. 전신사조를 가능하게 하는 기법이 배채법(背彩法). 화면 뒤에서 물감을 칠해 살색이 은은하게 배어나오면서 내면의 인품도 드러나게 하는 것이 특징이다. 사라져 버린 조선의 전통 초상화법을 현대적으로 계승하고 재해석한 화가가 바로 김호석이다.

엄혹한 현실 속에서도 우리나라가 강한 나라, 부자 나라가 되기보다 높은 문화의 힘을 지닌 '아름다운 나라'가 되기를 소원했던 백범은 일찍이 우리 모두에게 행복을 주는 것은 문화의 힘이라는 것을 믿었다. 이 시대 우리가 이뤄야 할 과제가 아닌가 싶다.

〈광주비엔날레 전시부장·미술사박사〉

日日만평

- 김종두

국민이 기가막혀

세기보청기

세기의 무대는 세계입니다!

탁월하지 않으면 세계를 이길 수 없습니다.
세기보청기는 누구도 따라 올 수 없는 완벽한 기술력을 모두 갖추었습니다.
이제 세기보청기가 여러분을 행복 속으로 모시겠습니다.

대한민국 대표보청기-
세기스타·세기보청기
www.segistar.co.kr

전국 점망
서울 삼일로점(탑골공원 삼일로 입구):02)2276-0687~9 강남점(강남고속터미널 앞):02)3477-5110 종로2가점(금강제화 옆):02)733-0220 송파점(석촌역 2번 출구):02)419-3388 선릉점(선릉역 2번 출구):02)985-1838 경기 인천점(구.시민회관 앞):032)421-2288 부평점(부평역앞):032)617-5110 수원점(남문 옆):031)246-5110 의정부점(포천로터리 홍국생명 앞):031)821-6655 안양점(백산쇼핑2001 이울렛 앞):031)469-0110~1 평택점(평택역앞):031)658-5110 용인점(용인시청 건너편):031)336-1090 오산점(국민은행 2층):031)378-4183 부천점(롯데백화점 옆):032)329-4400 남양주점(평내 호평역앞):070)8829-9903 부산 서면B점(서면로터리):051)818-8800 서면A점 818-0016 남포동점(부영극장 앞):051)256-7200 울산 울산점(공업탑로터리):052)268-2283 경남 마산점(마산역 앞):055)297-6080 진주점(중앙로터리 앞):055)745-8670 대구 동인점(동인네거리):053)425-4440 삼덕점(삼덕네거리):053)426-1511 남일동점(이카테미극장 앞):053)425-7575 경북 포항점(육거리):054)244-5110 안동점(구.안동농고네거리):054)859-2248 광주 광주점(구.도청 앞):062)225-5110 광주점(백운광장):062)651-4477 전남 순천점(중앙시거리 지하상가입구):061)752-8845 전북 전주점(진북로터리):063)252-5728 군산점(구.시청정문 앞):063)446-0198 익산점(북부시장네거리):063)838-6600 남원점(시장네거리):063)632-2626 대전 대전점(도청 앞):042)254-5110 대전점(중촌로터리):042)222-3388 대전점(대전역 앞):042)255-4900 충남 천안점(천안역 앞):041)553-2888 공주점(공주곤서거리):041)852-5110 충북 청주점(현.까르프 구.속리산고속 맞은편):043)222-1177~8 충주점(삼원로터리):043)852-1414 강원 강릉점(옥천오거리):033)647-0688 춘천점(팔호광장 앞):033)253-5110 제주 제주점(광양로터리):064)753-4368

세계적 권위의 인증! FDA허가!
미국 식품의약국 FDA허가 인증
국제품질 ISO 9001인증
국제의료기품질 ISO 13485인증
유럽공동체 CE마크 인증
의료용구 제조업체

상담전화
1588-8499/080-222-0100
세기보청기 대리점 사업본부 문의전화 02)538-9388

■광주 금남점 문의전화 (062)225-5110
■광주 백운광장 세기보청기 문의전화 (062)651-4477
■순천점 세기보청기 문의전화 (061)752-8845